

사물 지능화 환경에서의 조직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보안문화 탐색적 연구

나영섭(Youngsub Na)*, 강민경(Minkyung Kang)**, 문제욱(Jewook Moon)**,
장항배(Hangbae Chang)*
ysna@smu.ac.kr*, hellena89@naver.com**, paulmoon721@naver.com**,
hbchang@smu.ac.kr*

초 록

사물 인터넷 환경은 정보주체와 정보대상 사이에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 사이에 지능적 협업과정을 통해 다양한 융합 서비스(사용자 삶의 질 증진, 조직 가치사슬 혁신 등)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사물 인터넷 환경은 사용자 정황을 인지하여 자율적인 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반면, 현재 컴퓨팅 환경에서의 보안 위험성과 함께 서비스 구성을 위해 필요한 사물들 사이의 정보공유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쉽게 노출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향후 전개될 사물 인터넷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의 보안 시스템/서비스 등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정보 서비스 사용자(사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조직수준의 보안인식/보안공감대/보안문화 형성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세부적으로 공공 조직을 대상으로 보안문화 측정모형 설계를 통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서론

인터넷의 등장 이후 지금까지 정보통신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다.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개념이 그 중 하나이다. 이 개념은 지금의 인터넷과는 달리 인간을 포함하여 세상의 도처에 존재하는

만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정보를 수·발신 할 수 있는 역량과 지능이 부여된 새로운 네트워크 공간을 의미한다[3].

이러한 만물지능화 환경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실제 세계의 모든 공간과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지능화됨으로써 언제나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실제 세상 속의 어디든지 '도처에 존재하는

본 연구는 미래과학창조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용계약형 지식정보보안 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H2101-13-1001)

*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 상명대학교 지식보안경영학과

2페이지부터는 저자와의 협의 하에 공개하지 않음.